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8월 1일(주일) 제1355호



우리는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 ... 8월 2~6일 추모기간
8월 2일 오전 11시 Acts29비전빌리지 추모예배
8월 2~6일 새벽기도회 하용조 목사 설교 영상 상영

8월 2일은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이다. 온누리교회는 8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를 '故 하용조 목사 10주기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하용조 목사를 기리고 추모한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월~금)에서는 하용조 목사 설교 영상이 상영된다. 새벽기도회 주제는 8월 2일 '성숙에 이르기까지' (신 8:1~10), 3일 '성숙한 사람의 모습' (롬 12:1~5, 19~21), 4일 '유혹을 멀리하라' (잠 1:2~7), 5일 '하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잠 3:1~5, 21), 6일 '아들에게 보내는 권면' (잠 4:1~7, 20~22)이다. 새벽기도회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오전 6시, 양재온누리교회 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 나머지 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각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참여하면 된다.

추모예배는 8월 2일 오전 11시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에서 드린다. 하용조 목사 유가족 중심으로 예

배를 드린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가 사회를 보고, 정진호 장로(당회서기)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로 참여하면 된다.

박영희 선교사(Acts29비전빌리지)는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는 하용조 목사님이 한평생 뿌린 선교의 씨앗들이 전 세계에서 열매 맺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추모했고, 정회평 집사(마포공동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의 삶을 사모하며 그분처럼 살고 싶다"고 다짐했다. 김수민 권사(동대문중앙공동체)는 "하용조 목사님은 구령(救靈)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컸던 분"이라고 기억했고, 홍범식 장로(두란노해외선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이 가졌던 교회와 선교에 대한 꿈을 담은 우리가 잘 이어가고 싶다"라고 소망했다. 국명정 자매(강동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두란노서원에서는 하용조 목사 소천 10

주기를 기념해서 <하용조 목사 평전>과 <하용조 강해서 전집>을 출간했다. <하용조 목사 평전>은 12가지(복음, 성령, 교회, 목회, 예배, 설교, 전도·선교, 교육, 긍휼사역, 문화, 고난, 생애와 목회 사상) 주제로 하용조 목사 이야기를 담았다.

<하용조 강해서 전집>은 하용조 목사의 강해설교 총 24권(창세기 5권, 느헤미야 1권, 이사야 1권, 마태복음 5권, 요한복음 5권, 사도행전 3권, 로마서 2권, 에베소서 1권, 히브리서 1권)이다. <하용조 목사 평전>과 <하용조 강해서 전집>은 두란노문고와 두란노몰 홈페이지(mall.duranno.com)에서 10% 할인된 가격 판매하고 있다.

하용조 목사는 지난 2011년 8월 2일 소천했다. 향년 65세. 하용조 목사는 1976년 연예인교회 개척, 1980년 두란노서원 창립, 1985년 온누리교회 개척, 2005년 CGNTV 설립, 2007년 일본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시작, 2010년 NGO 더멋진세상을 창립했다. 저서로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목숨을 건 일본사랑 러브소나타>, <하용조 목사의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등 90여 권이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하루하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절은 녹음이 우거지고 물소리가 청량한 곳이 우리를 부르게 되었는데, 뜻밖의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일상생활조차도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니 잠깐만이라도 시원한 곳에서 걷고,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떨어져 사는 저에게는 고국 산천이 언제나 아름답게 추억됩니다.

제가 있는 미국의 작은 마을은 호수가 가까이 있어서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해 언제라도 마음 내킬 때 찾아가곤 합니다. 훌쩍 떠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큰 위안이 됩니다. 해가 질 때까지 혼자 앉아 있다 보면 어스름해지는 황혼에는 하 목사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저를 흔들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이렇게라도 살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지요.

하 목사님께서 사신 생애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었고, 늘 몸이 아팠어도 평강과 행복감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천국 가신 지 벌써 10년이 되었으니 온누리교회 성도들 중에 하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얼굴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온누리교회에서 교회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재훈 목사님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 목사님을 그리워해 주시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모예배 및 아름다운 기념 채플까지 지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지 10년이 된 지금, 앞으로 교회적으로 드리는 추모예배는 올해로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하 목사님을 기억하며 가족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보고 싶을 때 누구나 양지(Acts29비전빌리지)로 찾아가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학생이 대학에 가면, 졸업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이제는 하용조 목사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더욱더 강력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젊음의 교회로 전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이형기 드림

하용조 목사님을 추억하고, 기억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립고, 보고 싶은 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성도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용조 목사님이 남긴 사랑, 비전, 선교 열정이 가득하다. 어떤 이는 영적 아버지처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어떤 이는 과제를 남긴 사람으로, 어떤 이는 비전을 심어준 사람으로 하용조 목사님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다.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를 기리며 목회자, 장로, 권사, 성도들이 보내온 하용조 목사님을 추억하는 글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목회자들의 가슴에 새겨진 하용조 목사

거룩한 사도행전 29장의 행진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내가 20대 후반 온누리교회가 창립되었는데 그때부터 나와 하용조 목사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내 나이 60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하용조 목사님은 나의 인생과 믿음의 여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분이시다. 부족한 나를 온누리교회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격려해주시며 이끌어주신 나의 영원한 담임목사님이시다. 나의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결에서 지켜본 하용조 목사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다. 온누리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역으로 늘 바쁘시면서도 교회 돌아가는 일

과 성도들, 교역자들의 소식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참 신기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늘 지혜롭고 온유하게 대처하셨던 모습이 기억난다.

하용조 목사님은 꿈과 비전이 많은 분이셨다. 항상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선포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셨다.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품고 시작된 Acts 29 비전, 열방 선교를 품고 시작된 '2천/1만' 선교 비전, 다음세대와 청년들, 한동대학교 등 거룩한 예배의 회복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으시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셨다. 온 성도들이 그 비전을 품고 함께 성장해 온 것이 바로 '비전이 이끄는 교회' 온누리교회이다.

회이다.

하용조 목사님은 내가 마흔 살에 온누리교회 목회자로 부르셨다. 두렵고 당황한 나는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도와드릴 수가 있나요?”라고 물었다. 그때 딱 한마디 하셨다.

“그냥 내 꿈을 함께 껴줘.”

명쾌하게 부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내 마음에 박혀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용조 목사님의 당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이다.

하용조 목사님은 참 품이 넓은 리더셨다. 수많은 사람, 다양한 직업, 다양한 계층,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용조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던 사람까지도 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리더는 저렇게 품이 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용조 목사님 장례식

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상황이 열악한 목회자들과 신학생,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인, CEO까지 모두 하용조 목사님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었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하용조 목사님의 삶을 닮고 싶고, 많은 사람을 품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하용조 목사님이 가신지 10년이 지났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분이 시작한 온누리교회, 두란노서원, C GNTV와 다양한 선교사역, 하용조 목사님의 비전을 함께 품은 수많은 영혼들을 통해 거룩한 사도행전 29장의 행진이 계속될 것이다. 하용조 목사님, 그리웁습니다. 사랑합니다!



조혜영 목사
(여성사역본부장)

하용조 목사님이 내게 남긴 숙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의 설교는 설교학 모델처럼 준비된 설교, 옥한흠 목사(사랑의교회 원로)의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옥죄는 사탄의 시슬을 깨부수는 망치처럼 힘 있고 강한 설교, 하용조 목사의 설교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들으면 더욱 듣고 싶어지는 설교다.”

러브소나타 고베 때였던 것 같다. 호텔에서 하용조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다가 평소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다.

“목사님이 설교에서 사용하시는 단어들은 어떤 그렇게 알기 쉽고 깊이가 있는 건가요?”

하용조 목사님은 내가 설교, 묵회, 선교에 대해 질문하면 어린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설명하는 것처럼 참 기쁘게 설명해주셨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답이 저 말이다. 설교가 마약과 같다니. 실로 처음 듣는 표현이었다. 과격하게 들리는 단어였

지만 이해가 됐다. 왜냐하면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지에는 성경 지식이 나 신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픽처워드(picture word), 마치 그림으로 떠올릴 수 있는 말을 선택해서 시처럼 흐름이 있고,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소설, 사회과학, 철학, 잡지까지 많은 책을 읽고 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계속 배우고 있다.”

과연, 그렇구나! 나도 하용조 목사님처럼 계속 배우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를 선택해서 설교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이 들었다.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싶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있겠지만 무엇인가가 더 있을 것 같았다.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하용조 목사님과 자주 함께하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었다. 그건 바로 예수님과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다. 하용조 목사님은 몸 상태가 나쁜 와중에도 항상 성령님께 마음을 향하고 조용히 기도하셨다. 하용조 목사님 앞에는 수많은 일이 놓여있었지만, 집회나 무대 뒤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셨다. 그들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모습을 보고 알았다. 하용조 목사님 메시지의 소통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관심에서 온 것을 말이다. 방황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행동이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나는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말씀을 통역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용조 목사님의 아름다운 한국어 표현과 지식의 깊이를 더 알기 쉽게 일본어로 통역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 영혼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하용조 목사님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하고 싶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사랑과 한 영혼을 위한 애끓는 마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10년이 지났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무엇인지 묵상한다. 하용조 목사님이 나에게 그것을 숙제로 남겨 주셨다.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동경온누리교회 담당)

설교와 비전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

하용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 같은 분이셨다.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대학시절 내내 깊은 영적 방향을 겪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인생 비전도 없었다. 너무 캄캄한 시기였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며 겨우 예배만 드리곤 했다. 학과 선배가 온누리교회를 추천했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내게 함께 성가대를 섬겨 보자고 권했다. 혹시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다. 온누리교회 성가대로 서게 되었고, 처음으로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로소 어둡고 기나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터널 끝에 있는 새로운 빛

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나도 모르게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가 메마르고 절망 속에 있었던 내 영혼을 조금씩 회복시켜주었다.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리면서는 예배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배와 찬양 집회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었다. 인생을 드러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비전도 발견했다. 목회자의 길이었다. 그 다음 해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하

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온누리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파트교역자에서 전임교역자로, 지금은 대학청년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다.

하용조 목사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못했다.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와 비전은 지금도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목회를 배웠다. 나의 설교에는 하용조 목사님의 어투가 남아 있고, 하용조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Acts 29 비전이 모든 사역에 배어나고 있다.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았다. 만약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용조 목사님은 너무 귀한 하나님 말씀의 통

로였고, 목회의 스승이었으며, 설교의 모델이셨다.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10년 전 하용조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한 평생을 드린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았다. 하용조 목사님 소천 10주기다. 다시 하용조 목사님의 신앙과 헌신을 본받기를 기도한다. 하용조 목사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한다. 하용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림습니다.



김승수 목사
(대학청년본부장)

장로, 권사들이 기억하는 하용조 목사

그때 그날들이 그림다!

내가 하용조 목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1987년 어느 주일이였다. 어느 장로님의 권유로 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해서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당시 나는 오랜 교회 생활에 젖어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갈급했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해설교를 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와! 저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계시구나!’ 눈이 번쩍 뜨이고 마음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일상이 지루할 정도로 다음 주일이 기다려졌다. 마태복음 강해설교가 계속됐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특히 마태복음 6장 14~15절 ‘용서에 관하여’를 제목으로 2주 동안 설교하셨는데 마음이 저릴 만큼 감동적이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전통적인 교회만 다니다가 온누리교회에 오면서 놀라운 것이 많

았다. 교회에 소극장, 서점, 카페가 있는 것부터 목사님의 복장, 강대상상의 모습이 당시에는 생소하고 신선해 보였다. 무엇보다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일대일제자양육과 성경을 스스로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QT가 생소하면서 신선했다. 이 두 가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장 동력으로 바른 선택이었고, 훌륭한 목회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창립 때부터 선교에 큰 뜻을 가지고 역량을 쏟으셨다. ‘내가 선교지로 가야 하는데!’라고 수시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건강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다. 그 선교 열정 덕분에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 해외비전교회, 러브소나타 집회, 문서선교 두란노서원, 영상 선교사 CGNTV, 선교사 훈련을 위한 Acts 29 비전빌리지 건립까지 이르렀다.

나는 2002년부터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이듬해까지 10년 반 동안 온누리선교재단을 섬기며 목사님을 가까이서 자주 뵈었다. 목사님께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때로는 하용조 목사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다. 그러면 며칠 뒤 다시 만나 나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금방 수긍하시고 수정이나 철회를 해주시곤 하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유연성과 아량이 참 넉넉하신 분임을 알 수 있었다.

공동체 초신자 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과 점심 식사 같이 하는 분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며 궁금해하셨다. 우연한 기회에 하용조 목사님께 스치듯 말씀드렸더니 금방 “그분 나하고 같이 식사하도록 합시다”라고 하셨다. 얼마 뒤 사모님까지 함께 식사한 적이 있다. 그때도 하용조 목사님은 참 담백하고 소탈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다.

하용조 목사님은 건축에 무척 흥미와 관심이 많았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건축가가 되었을 거야”라고 하시면서 건축에 관해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아이디어를 쏟아내셨다. 건축사인 나도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

이 아니었다. 하용조 목사님의 교회 사랑은 가정을 넘어선 사랑이 아니었나 싶다. 무슨 일이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정이 한 발짝 뒤로 밀리는 것 같아 때로는 안쓰러웠다.

하용조 목사님 소천 10주년을 맞이한다. 하용조 목사님과 사역했던 그날이 그림다. 사사로운 잡담들을 나눴던 지난날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하용조 목사님의 이른 소천에 마음이 저린다. ‘그때 더 열심히, 더 잘 섬겨 드릴걸’ 하는 아쉬움과 회한이 남는다. 하용조 목사님이 하늘 나라에서 지금 온누리교회가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 같다. 그로 인해 마음에 잠시나마 평안을 느낀다.



이상욱 장로
(서초A공동체)

그 꿈과 비전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던 한 사람, 하용조 목사님. 주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병약한 육신에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선교와 복음 전파에 열정을 쏟으셨던 선한 목자. 성령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목양과 사역을 힘써 섬기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언 10년이 되었다. 사모님과 가족들이 주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원한다.

하용조 목사님과의 첫 만남은 1986년 1월 초 가건물에서의 주일예배였다. 예배를 드리고 그 가건물에서 소그룹 4명리와 일대일제자 양육 과정을 받았다.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깨달았다. 그 감격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교회에서 사

람들 간의 친교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참모습을 감당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1988년부터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하용조 목사님의 부드럽고 간결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과 매일매일 영혼의 호흡을 나누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벽을 깨우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

비전의 사람이며, 그 비전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하용조 목사님은 주께 받은 사명과 뜨거운 열정과 거룩한 헌신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 일대일제자양육, 큐티, 평신도 교육, 문서사역, 두란노서원, CGNTV, NGO 더멋진세상, 러브소나타 등 수많은 사역을 통해 온 누리에 섬김과 나눔을 전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충성되게 감당하셨다. 사람 좋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가에 선명하고, 사랑의 음성이 귓

가에 쟁쟁 울리는 듯하다.

하용조 목사님이 목숨을 걸 정도로 꿈꿨던 비전은 1994년 2천/1만 비전 선포로 정점을 올렸다. 이를 위해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기도하느니, 비전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열린새신자예배를 비롯해서 사역축제, 국내외 아웃리치, OMC, 성령축제, 리더십축제 등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의 열정을 다 쏟으셨던 것을 기억한다. 이 비전은 2018년 선교사 누적파송 2,000명 달성, 2021년 현재 누적 2,146명의 열매로 돌아왔다.

온누리교회가 국내에 손꼽을만한 대형교회로 자리나 시점에 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선포하셨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지향하며, 흠어지며 재생산하는 교회로서 온 누리에 복음을 전하는 Acts 29 비전이 바로 그것이다. 그 비전의 결과 현재 국내 10개 캠퍼스, 해외비전교회 29개, 국내 예배처소 4개에 이르렀다.

온 성도들이 온누리교회의 사역과 비전이 끊임없이 확장되기를 고대한다. 국내 캠퍼스와 해외비전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해서 거룩과 성실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새로운 비전과 사랑으로 열방을 품고 나아가서 만백성이 구원받고 주께 속히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a)라는 말씀대로 순종한 비전의 사람 하용조 목사님이 선포하신 비전과 꿈을 우리들이 계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보며 힘써하나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한다.



조형진 장로
(한강공동체)

그 영성과 비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10년 전 하용조 목사님 장례식이 생각난다.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상실감을 느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아버지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면서 영영 울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에 대한 여러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1994년 온누리교회에 왔다. 당시 나는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여러 교회를 전전하고 있었다. 내가 온누리교회에 정착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 덕분이다. 예배당에 자리가 없어서 2층 계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

들었다. 하용조 목사님은 ‘비전의 사람이 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의 기도제목이 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다.

하용조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기억한다. ‘변화산’에 관한 설교가 내가 들은 하용조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다. 휘청휘청 강단에 올라가시고, 힘겹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보였다. 그 모습이 이 땅에서의 소명을 마치고 마지막 천상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았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는 모습처럼 비취졌다. 마지막까지 모든 육체의 힘을 소

진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시는 제물이 되고, 양들에게 부족함 없이 꼴을 먹이는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내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으로 다가왔다. 내가 하용조 목사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유다.

하용조 목사님 사모님이 스가라서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이 사모님을 강단에 세우시며 “나보다 아내가 설교를 더 잘한다”고 말씀하셨다. 사모님은 시종일관 차분한 목소리로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셨다. 하용조 목사님이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소문이 성도들에게 전해질 정도였다. 한동대학교가 세상의 공격과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기억난다. 하용조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꼭 필요하다면서 앞장서서 힘든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용조 목사님을 포함하는 편지, 나쁜 소문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모습이 큰 감동이었다. 소명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침묵의 무게가 깊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체감되었다.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영성과 비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훌륭한 목사님들에 의해 변함없이 전수되어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신용년 목사
(경기A공동체)

성도들이 만난 하용조 목사

비전을 심어준 사람

“가장 위대한 행동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책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에 나오는 말이다. 2007년 특별새벽기도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은 일본을 향한 ‘러브소나타’ 비전을 선포하셨다. 그 비전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청년에게도 심어졌다.

하용조 목사님의 러브소나타 비전 선포와 함께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 영향 때문일까? 나는 2008년 일본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내 생애 첫 해외 아웃리치였다. 국내 아웃리치도 몇 번 가보지 못한 나였기에 출발하기 전부터 막막하기만 했다. 그 막막함 덕분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당시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싶다고,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렇게 다녀온 2008년 야마가타 아웃리치가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특히 노방전도를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일본 땅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고, 한 영혼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주셨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일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하용조 목사님께 부여하신 일본을 향한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일본선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신혼 여행부터였다. 아내와 신혼여행지를 일본으로 정하고 아웃리치 현장이었던 ‘야마가타 남부교회’를 찾아갔다. 우리의 방문에 감동을 받은 남부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와 교제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선교 여정의 마중물이었던 것 같다. 문화선교의 꿈을 꾸며 디자인 회사를 세웠고, 선교를 위해 자녀 교육을 홈스쿨로 하기로 선택했다. 하나님이 주신 일본을

향한 마음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는 큰 기쁨이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아웃리치가 끊어질 정도의 절박한 상황과 마주했다. 우리가 섬기던 교회가 동일본 지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설상가상 그해 여름, 사랑하는 하용조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다. 우리는 아웃리치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였다.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내 장례식에 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라고 하셨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강력하게 부여주셨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웃리치를 가기로 결단했다. 하나님은 하용조 목사님의 일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주셨다. 그 덕분에 여러 힘든 일과 쓰나미로 인해 끊어질 뻔한 야마가타 남부교회와의 사랑의 끈을 지금까지도 탄탄하게 이어올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

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 지금까지 하용조 목사님이 받았던 하나님의 비전이 그러했듯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쓰나미도, 코로나19 팬데믹도, 그 어떤 영적인 공격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오늘도 나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꿨던 하용조 목사님처럼 나도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도행전적 선교를 꿈꾼다.

“하용조 목사님, 당신은 한 청년에게 귀한 비전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꽃피우는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성도
(강동온누리교회, 시아와세 대표)

내 인생 가장 귀한 만남

40대 중반에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했다.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하게 되면서 눈앞이 캄캄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온 우리 가족은 온누리교회를 찾아갔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28년 전 주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찬양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본당 맨 앞 좌석에 앉아계시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오른손을 드시던 모습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미소 띤 인자한 모습으로 설교하시는 것도 좋았다. 따

스함이 가슴에 다가왔다. 설교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였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며 새신자반 과정을 마치고, 순에 소속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일대일제자 양육과 QT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기둥이 세워졌다. 내적치유학교와 두란노바이블아카데미 상담학교를 수료하면서 치유와 회복도 경험했다. 가끔 교회 안팎에서 하용조 목사님과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악수해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았다.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세운 교회다. 나는 온누리교회에서 구원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 1995년 ‘용평혁신자스쿨’이라는 지금의

예수제자학교와 비슷한 학교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평혁신자스쿨에 참석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성품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했다. 당시 나는 눈 쌓인 마당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 자유함을 느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내면의 깊은 치유를 경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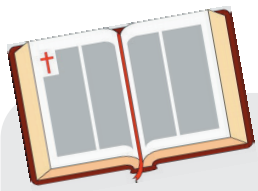
온누리교회와 하용조 목사님의 배려로 ‘남영동청소년공부방’에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남영동청소년공부방은 온누리교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복지기관이었다. 나는 낮에는 공부방에서 사역하고, 저녁에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힘들지만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5년 동안 공부방 사역을 마치고 변동코이노니아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예순 가족과 어르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2003년 가을, 예순 가족 가을 수련회가 남한산성 목상의 집에서 열렸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 바쁜신 중에도 오셔서 예순 가족들을 축복해주시고 격려해주셨다. 그때 같이 어울리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교회 사역을 그만둔 뒤에는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 말씀을 따라 도시 미자립교회 협동목사로 섬겼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하용조 목사님과 만남이었다. 하용조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덕분에 부족한 한 사람이 천국 소망을 품은 크리스천이 되었다.



김명식 성도
(마포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와 전쟁보다 근본적이고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과거의 어느 역사보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질문명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객관적 기준도 거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생물학적 성별까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거부하고 스스로 성을 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개인의 주관적 느낌을 신성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시대 흐름에 편승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인문학자들의 메시지가 일관됩니다. “자신에게 충실하라”,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자신의 느낌을 존중하라” 등입니다. 결국 개인의 느낌이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기가 좋다고 느끼는 것은 선이고, 자기가 나쁘다고 느끼는 것은 악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철저한 진화론자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책 《사피엔스》를 보면 반성경적이고, 가설에 불과한 것을 사실처럼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 참 의미 있는 지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자성의 비판입니다. 인간의 의식과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기술은 카누에서 우주왕복선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무책임하다는 점이다. 우리 친구라고는 물리법칙밖에 없는 상태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의 친구인 동물들과 주위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이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면서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무책임한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주까지 여행하

는 능력을 보여 주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이 고통을 줄이고 있습니까? 도리어 늘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더 위험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고, 생명윤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대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 먹은 이유도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넘어가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선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불순종하고, 그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모습이 금지된 열매를 따 먹은 아담과 하와의 유전인자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의존하는 죄입니다. 모든 불행과 저주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을 의존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삶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생겨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렘 17:5-6).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정의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며, 결국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입니다.

“깃딤 해변가로 건너가서 보고 계달에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피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라. 어떤 민족이 자기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우상들과 바꾸었다. 하늘아, 이것으로 인해 소스라치게 놀라라. 몹시 두려워해 황폐해지라. 여호와와 같이”(10-12절).

하늘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고발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도 그들의 신에 충성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헛된 우상으로 바꾸는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지고 스스로 신이 되는 과정을 자세하

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여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롬 1:21-23).

추락의 과정, 타락의 과정,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스스로 신이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입니다.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계속 추락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포로가 되어서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기술을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탁월한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영혼은 반드시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잘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과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악의 습관에 빠진 우리를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선포하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렘 17:7-8).

어떠한 환경에서도 푸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시냇가에 뿌리내린 나무와 같은 삶이 하나

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체험을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13절).

두 가지 악을 지적하십니다. 첫째,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로 비유하셨습니다. 엄청난 기근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홍수가 나도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둘째,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깨끗한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물을 외면하는 것과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는 갈망은 무엇으로든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스터턴의 유명한 문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아무도 경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을 때 다른 어떤 것을 반드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갈망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 안에는 단순한 물질이나 어떤 관계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갈망하듯, 육식 생물이 달리는 땅을 갈망하듯, 새가 창공을 갈망하듯, 본질적인 갈망, 근본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정도의 갈망이 아닙니다. 인간다워지는 갈망입니다. 인간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갈망입니다.

〈14면에 계속〉

멘토님, 알려주세요 “라떼는 말이야”

오늘은 새로운 하루라는 믿음!

“직장에서 일한 지 5년이 넘어갑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과 열정이 시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일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가끔 매너리즘에 빠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안일함, 매너리즘, 동기부족에서 벗어나서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읽으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라도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지면 열정과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과 자만심에 빠졌기 때문 아닐까 생각한다. ‘매너리즘’은 16~17세기 미술 양식으로 ‘독특한 방식의 과도하고 부자연스러운 탐닉’이라는 의미가 있다. 일이나 삶의 방식에 빠져든다는 뜻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보람을 느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고 안일함이나 나태함에 빠지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불신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갖다 놓게 됨으로써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한다. 일에 종속되는 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이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출근하기 전이나 출근길에 약 30분 동안 큐티를 한다든지, 업무 중간에 잠깐씩 기도를 한다든지, 퇴근 이후 운동을 한다든지, 관심 있는 분야 강의를 듣는다든지, 며칠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나도 20대 후반 첫 직장에 들어가고 5~10년 차 되었을 때 새로운 생활에 대한 도전을 잃어버리고 매일 비슷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큐티노트를 쓰면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했다. 일기를 쓰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40대 초반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했다. 약 10여 년 동안 마라톤을 했다. 마라톤은 출발할 때 속도와 도착할 때 속도가 동일해야 완주할 수 있다. 초보자들은 초반에 과속을 하다가 20km 정도 지나면 힘이 달려서 낙오하는 경

우가 많다. 초반의 고통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면서 영혼까지 말끔히 씻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공동체 순장을 맡으면서 말씀을 깊이 공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면서 생기를 회복한 것 같다. 안일함에 빠져 매일의 삶이 똑같이 느껴지는 현상은 사사시대 삶이나 노년기 솔로몬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다.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사람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삿 17:6, 21:25). 노년기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허무하고(전 1:2),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다(전 1:9~10).

이럴 때 묵상하면 좋은 말씀이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전 12: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

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31).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8~19).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매일 오늘은 새로운 하루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주님을 혼자서 찾고 일대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순에 소속되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요일 4:20).



강창재 장로
(J4U청년부 멘토,
법무법인 대아 대표)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감’

‘공감’은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공감은 서로의 관계를 더 가깝게 이끌 뿐만 아니라 치유적인 역할도 한다. 부부 대화에서 공감을 어려워하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종종 본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공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공감은 다소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면이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남자들은 보통 성장 과정에서 공감을 훈련하고 습득하는 데 결여된 부분이 있다. 대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이 ‘해결 중심’, ‘사실 확인’, ‘정보 습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대화 스타일이지만 부부관계에서 이러한 대화방식은 서운함, 단절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남편들이 공감을 오해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공감이 정말 시급하게 부부 대화에서 필요한지, 더 중요한 것은 빠른 해결 방법 제시가 아닌가?’라는 견해다. 부부 소통 교육을 많이 받았던 어떤 남편이 “아내와의 대화에서 도대체 어떻게 공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공감이 부부가 직면한 특이 아내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이 익숙하지 않은 배우자는 문제 상황에서 끊임없이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배우자를 속히 그 상황에서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해결보다 공감이 부부에게 더 필요하다. 충분한 공감 이후 해결책을 모색해도 늦지 않는다. 배우자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나눈다면 배우자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해야 한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는 경험을 해야 한다. 충분한 공감으로 심적인 갈증이 채워지는 것이 먼저다. 해결책은 그 후에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나는 공감을 할 수 없다. 도대체 공감이 어느 정도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끼라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부부 모임을 하면서 이러한 견해를 가진 남편에게 ‘공감(empathy)’과 ‘동감(sympathy)’의 차이를 간략하

게 설명했다. 동감은 상대가 느끼는 것을 나도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 동감은 자신에게 동일한 경험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내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감이다. 공감은 ‘마치 그러한 것처럼’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다. 로저스는 공감을 “자신의 판단이나 이해의 틀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해와 근거에 자신을 맞춰 마치 상대가 된 것처럼 느껴보고 지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과 동감의 차이를 들은 남편이 즐거워 보였다. 그동안 아내를 공감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고, 감정적, 정서적, 이성적으로 잘 되지 않았다고 했다. 살아오면서 의기소침해 본 적

이 거의 없고, 관계에서 예민하게 신경 쓰거나 힘들어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아내는 자신과 다르게 좌절감과 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됐다고 했다. 아내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자신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걸로 고민하고 어려워하지?’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공감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당혹스러운 마음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자신이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공감이 아니라 동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동감은 정말 어렵지만, 공감은 실천해 볼 수 있겠다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했다.

공감이 이루어질 때 부부의 감정과 정서적 대화가 깊어진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 더 깊은 친밀감과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다. 공감을 통해서 문제와 갈등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얻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고 말씀하셨다. 부부관계에서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깊은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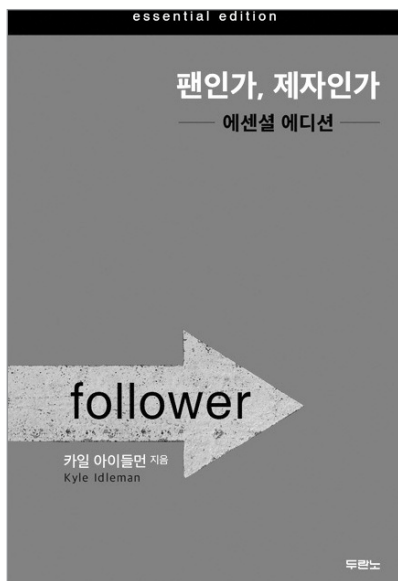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한다!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 저 | 두란노 | 12,000원

내가 이 책을 처음 읽게 되었을 때가 기억난다. 스스로 ‘과연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신학대학원 1학년 여름이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며 선택했던 목회자의 길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믿음의 여정을 선택한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무수히 많은 시간을 기도의 골

방에서 보내고 있었다. 많은 고민과 갈등을 안고 기도하던 중에 교내서점에서 〈팬인가, 제자인가〉를 발견했을 때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다가왔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회피하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책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주일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만 하는 팬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삶을 공유

해야 한다. 이 책은 ‘팬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독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도록 격려한다.

저자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여정에서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되지 않은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음을 강조한다.

오늘날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예수님을 최

저자는 이 책에서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보여준다. 그 인물들의 공통된 모습은 어떤 유혹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었다. 세상의 수많은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묵상한다. 그러나 제자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삶이 성장하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제자로 살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책 〈팬인가, 제자인가〉는 우리의 삶에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자의 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기를 소망한다.



이우람 목사
(Pole2대학부)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며 동행하는 제자인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 관계에 집중하면서 믿음의 여정이 어느 순간 뒤로 숨어버린다. 그리고 종교활동에 그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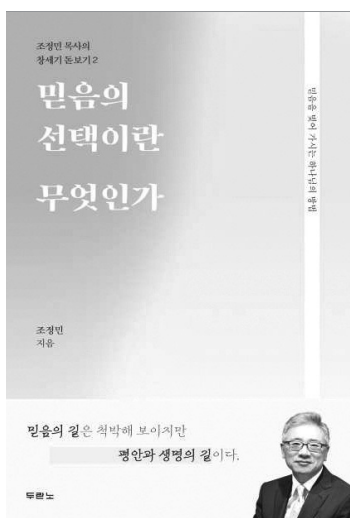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팬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제자로서 살아갈지를 반드시 선택

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제자가 얼마나 될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삶이 주님께 헌신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주님 외에도 너무 많은 기준이 세워져 있다. 그 기준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우리를 더이상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제자의 삶은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바뀔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두란노 신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조정민 저 | 두란노 | 18,000원

언약, 좁은 길의 시작’을 주제로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을 따라가며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이 자라는 시간을 거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무엇이 믿음의 선택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길로 한 발자국 더 내딛기를 소망한다.

“**믿음은 날마다의 선택으로 빚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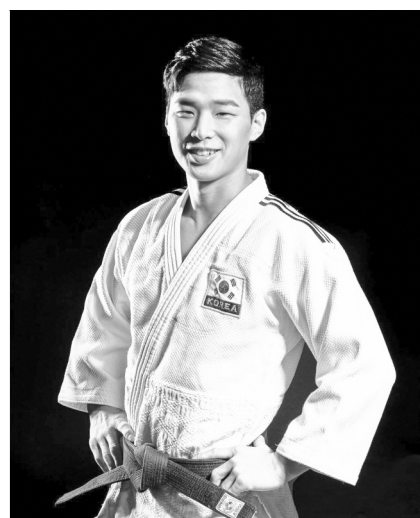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언제 뜰지, 무엇을 먹고 마실지, 이 약속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언제 잠을 자러 갈지 등 쉬지 않고 선택한다.

책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인가〉는 일상의 모든 선택이 ‘믿음’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믿음을 지키는 삶도 날마다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세상이 가라 하는 길인지 우리는 늘 갈림길에서 있다.

이 책은 조정민 목사(베이직교회)의 두 번째 창세기 돋보기 시리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9장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기로 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부 ‘선택, 하나님 vs 세상’, 2부 ‘혼돈, 하나님을 떠난 삶’, 3부 ‘단절, 믿음의 첫 단추’, 4부 ‘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메달



도쿄올림픽 유도 남자 66kg 동메달
‘안바울’

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안바울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유도선수의 길을 걸어왔다. 2015년 국가대표가 되어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도쿄올림픽에서 크리스천 선수들의 믿음과 땀방울이 결실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9개 종목 선수 232명이 출전했는데 그중에서 30여 명이 크리스천이다. 유도 남자 66kg급에서 세계랭킹 1위 이탈리아 마누엘 롬바르도 선수를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건 안바울 선수도 잘 알려진 크리스천 선수다.

안바울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깊은 신앙이 있었다. 안바울 선수의 원래 이름은 ‘안태양’이었는데 5살 무렵 부모님에게 스스로 안바울로 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바울이라는 이름 덕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한다.

안바울 선수는 몸과 마음이 힘들 때마다 선수촌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한다. 또한 안바울 선수는 늘 “하나님께서 신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유도선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여름 Outreach 그 은혜 속으로!

◆ 노원공동체 아웃리치 ‘요르단 이정우, 안소연 선교사 위로’

“선교사님, 당신은 보배입니다!”



노원공동체 믿음다락방 성도들이 이정우, 안소연 선교사(요르단)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색다른 아웃리치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언어와 풍토, 풍습이 다른 낯선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서 섬기는 기회를 주셨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섬기는 기회는 정말 큰 은혜이고 감사였다.

노원공동체 믿음다락방은 요르단에서 잠시 귀국한 이정우, 안소연 선교사님을 섬겼다. 우리 부부도 중국 상해에서 문서선교사로 3년 동안 사역한 적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의 어려움과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더 큰 위로가 되는지 고민이 됐다.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한국에서의 일정을 위해 기도했다.

우리는 선교사님의 귀국 일정에 맞춰 일정을 잡았다. 이정우 선교사님이 대장암 수술과 심장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 진료를 마치면 곧바로 선교지로 돌아가셔야 했다.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없어서 다른 다락방보다 서둘러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장소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푸르른 숲이 울창한 물대방산 영성수련원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기 전이라 다행히도 대면 아웃리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 당일 장소에 도착해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다락방 장님과 순장님들이 준비한 재료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하셨다. 바비큐 파티에서는 담당목사님과 장로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 사랑과 감사가 넘쳤다. 열심히 준비한 점심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과 나는 아름다운 교제는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

식사를 하던 중에 한 형제가 2층으로 나를

불렀다. 가봤더니 선교사님에게 남길 영상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나왔다. 먹먹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교사님께 인사를 남겼다.

“선교사님, 먼 땅 요르단에 가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힘내서 사역하세요!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락방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 부부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축복의 메시지를 각자의 목소리로 남겼다.

선교사님께서 선교지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우리 다락방 식구들의 기도와 위로 덕분에 늘 힘을 얻는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다. 한 달에 한 번 비대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보였던 선교사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중보기도 시간에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발 벗고 뛰시는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담당 목사님의 진한 마무리 기도는 선교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 보내는 선교사의 식어가던 마음에 선교의 열정이 다시금 타올랐다. 나는 평생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것을 다짐했다.

단체 사진도 촬영했다. 각자 손에는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피켓을 들려 있었다. “당신은 보배입니다!”를 외치며 아웃리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교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최전방에서 애쓰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아웃리치를 진행하면서 회복된 선교 열정을 불태우고 기도로 동역하기를 쉬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문점심 권사(노원공동체)

◆ 서초C공동체 온라인 아웃리치 ‘대구 모녀 선교사 위로’

“성도님들도 선교사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서초C공동체 성도들이 온라인 아웃리치에서 선교사들을 축복하고 있다.

나는 여성 싱글 선교사의 엄마다. 1998년 선교사가 되겠다는 말을 말렸었다. 선교사의 길이 눈물과 피 없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딸의 앞길을 인도해주실 것을 믿고 딸을 선교지로 보냈다. 지난 텃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딸을 보는데 내가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담대함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딸이 건강도 안 좋아지고 현지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듣고는 딸 혼자 선교지로 보낼 수 없었다. 내가 밥이라도 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76세에 딸과 함께 선교지로 갔다.

선교지에 가보니 선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나중 문제였다. 선교에 헌신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있었다. 딸의 동료 선교사들을 만나면 그들에게도 “참 귀하다”는 위로와 축복을 전했다. 선교지에서의 생활은 60~70년대 우리나라 생활과 비슷했다. 딸이 캠퍼스 사역을 개척하는데 내가 도울 일도 별로 없고, 언어도 잘못하고, 현지 음식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아져 중간에 한국에 나왔다.

그런데 어느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가라고 하셨다. “나는 중국어도 못하고 당뇨 때문에 건강도 안 좋고, 거기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 당뇨병을 낮게 해줄 테니까 중국에 가라. 당뇨병은 사람으로서 못 낮게 한다. 가서 웃어라, 중국어로 숫자 1부터 10까지만 알면 된다”고 분명하게 세 번이나 말씀하셔서 순종했다. 그렇게 중국에 다시 가게 되었다. 그때부터 당뇨약을 안 먹고 당뇨병이 없어졌다. 지금도 너무 건강하다.

중국에 가보니 딸은 종교 탄압으로 인해 학

생들이 만나주지 않아 사역을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닫힌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느냐, 밖으로 나가서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혼자 나가서 전할 용기가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녀가 나가서 전도하게 되었다. 나가서 전도하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녀에게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면서 울고 웃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말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는 웃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 코로나19로 선교지를 나오기 전까지 1,052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씩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다 말하지 못해 아쉽다.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선교지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내 나이가 곧 80인데 복음 전할 생각만 하면 마음이 설렌다.

얼마 전 온누리교회 서초C공동체에서 아웃리치를 위해 김준택, 독고석 집사님이 멀리 대구까지 와서 교제를 나누고 가셨다.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챙겨주시고,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서초C공동체 성도님들이 나를 선교사라며 축복해주셨다.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서초C공동체 성도님들도 선교사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선교지에서 웃으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

/ 구두연 선교사(석사라 선교사의 어머니)



코로나19, '예배'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전 청년전도집회
'The One'

하나님이 품으시고 찾으시는 한 영혼

지난 7월 11일 대전온누리교회에서 청년전도집회 'The One' 예배집회(이하 더원예배)를 개최했다. 더원예배는 두 달 전부터 준비했다. 전도가 어려운 시기에도 전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 '한 영혼을 품자'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사실 목사님의 전도에 대한 비전을 듣고 '지금 이 시기에 새로운 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다. 더욱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가득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전도사님과 MC들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누군지 모르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한 저를 용서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더원예배를 위해 매일 기도했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매주 선물을 준비해서 전도대상자들에게 전달했다. 선물을 준비하면서 전도대상자들이 예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허브캔디, 디지커피, 화분 등에 'The One'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 예배에 대



대전온누리교회 청년전도집회 'The One' 예배 현장.

한 소중한 마음이 하나씩 모이기를 기도했다.

더원예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당일 선물 준비, 게스트 연락 등으로 더욱 바빠졌다.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이었지만 기쁨과 기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전도집회 며칠 전부터 코로나19가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코로나19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서울에서 초청한 게스트 한 분이 못 오게 되기도 했다. 내 마음이 점점 낙담했다. 더원예배 하루 전인 토요일에 모두 함께 모여 다시 기도로 준비했다.

더원예배에는 방역지침을 따라 예배당 전체 수용가능 인원의 30%가 참여하여 자리를 채웠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게스트들의 찬양, 목사님의 말씀, 샌드애니메이션까지 모든 순서

가 다 은혜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하게 채워 주셨다. 전도집회 며칠 뒤 우연히 한 전도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네일숍을 운영하는 원장님인데 본인은 원래 교회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났고, 때마침 네일숍 고객이 더원예배에 초청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품으신 한 영혼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더원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주님께 나아간 예배라는 마음이 들었다. 감사하고 놀라웠다.

나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찾으시는 한 영혼이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연약한 내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 반박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신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다.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 김성역 자매(대전온누리교회 드리머스청년부)



코로나19, '어머니학교'와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김포M센터
어머니학교

그녀들이 믿음을 잘 지켜 가기를...

'미안마를 위한 40일 특별기도회'를 하던 중에 김포M센터에서 미안마 난민들을 위한 어머니학교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포M센터를 방문해서 김명숙 선교사님을 만나 여러 상황을 들었다.

미안마 난민 어머니들은 불교국가인 미안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많은 핍박을 받다가 말레이시아로 피신했고, UN을 통해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었다. 낯선 땅에서 난민으로 살면서 생계를 꾸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과 깊은 만남보다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에 빠져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게임과 컴퓨터 중독으로 방치된 자녀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했다.

낯선 땅에서 외로움과 가난,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스태프들과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면서 김포M센터 어머니학교를 기도로 준비했다.

어려운 시국 영적 전쟁도 만만치 않았다. 스태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직장 가정사로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마



김포M센터 어머니학교에서 이주인 어머니 14명이 어머니의 정체성과 믿음을 굳건히 했다.

음을 줄이기도 했다. 어머니들을 설득한 선교사님의 열정으로 지난 6월 12일 미안마 난민 어머니 11명과 방글라데시 어머니 3명으로 구성된 김포M센터 어머니학교가 시작됐다.

1주차 첫 시간에 만난 어머니들은 삶에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생기자자 잃어버린 연약한 모습이었다. 어머니학교 스태프들은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맞이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자 애썼다. 2주차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아내로서의 사명'이었다. 미안마 난민 어머니 중에서 6명이 남편이 없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세요', '엄마의 사랑과 따뜻함을 표현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숙제도 내주고 꼭

자녀들을 안아주겠다는 다짐도 받았다. 3주차 강의 주제는 '어머니의 영향력'이었다. 자녀교육의 사명과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줬다. 어느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데서 들으면 한 귀로 들어와 한 귀로 나가는데 여기서 들은 말씀은 가슴에 남아요"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4주차 네 번째 강의 주제는 '기도하는 어머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의 강의를 하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했다.

5주차 마지막 강의는 '십자가와 사명'을 주제로 미안마 난민을 섬기는 최영석 선교사님이 설교하셨다.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영접기도까지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김포M센터 어머니학교를 수료한 어머니들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남편과 아이에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 거예요", "남편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배웠어요"라고 고백했다. 김포M센터 어머니학교 수료자들이 믿음을 잘 지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이정원 권사(과천의왕공동체)

코로나19, '성경공부'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OBC '하나님의 성품' 수로 간증

내가 OBC '하나님의 성품'을 수강해야겠다고 결심한 동기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 단계가 있고, 신앙의 연차가 높아질수록 그에 걸맞은 자리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어린아이가 이유식을 먹다가 성장하면 밥을 먹듯이 신앙생활도 날로 성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동기는 너무 간단했는데 하나님의 성품 과정을 들으면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

나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못 하는 성격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올해는 나도 모르는 사이 교회에서는 순장, 직장에서는 신우회장 등 여러 관계망에 노출되었다. 직장 업무도 작년과는 달리 강도가 세배 정도 되는 일을 맡으면서 여러모로 혼란스러웠다. 다들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날이 갈수록 지쳐갔다. 그래도 준비하고 있던 안수집사 직분으로 가는 길을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필수 이수 과목 중에서 하나라도 꼭 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하나님의 성품 과정을 신청했다.

처음에는 주일 오후 7시인 줄 알고 클릭했다. 그런데 오전 7시라는 것을 개강 전날 밤에 알았다. S브릿지공동체는 주일 오후 5시에 1시간 30분 정도 순예배를 드린다. 아마 오후 7



이재은 성도(S브릿지공동체, 사진 하단)가 OBC 하나님의 성품 수업을 들으며 조원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다.

시에 하나님의 성품 과정이 진행되었다면 나는 너무 분주한 마음으로 허겁지겁 순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오전 7시에 하나님의 성품 과정이 시작하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원들이 돌아가며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거의 내가 하면서 기도 내용이 매번 새로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한 수

기쁜 마음으로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 성장의 길로 안내할까 등을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성품 과정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그 마음으로 순원들을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더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매주 주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어느새 피곤이 사라졌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조원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영적 곤고함과 에너지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매주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씩을 배우면서 그 주제가 순예배를 위한 기도제목이 되었다. 그 덕분에 기도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었다. 순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순원들을 전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존감이 올라갔다. 탈진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성품 과정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하나님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조차 버리지 않으시고 선하게 사 용하시는 분이다. 에너지 넘치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성은 목사님과 리더십, 윤유조 조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이재은 성도(S브릿지공동체)

코로나19, '성경공부'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바이블아카데미 '엔택트 전도' 수로 간증

8년 전 친한 지인의 초대로 J4U 청년부 전도 집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 그날 이후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 전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었다. 아들이 권유해서 출석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라는 장애물이 닥치면서 교회에 발길을 끊으셨다.

바이블아카데미 '엔택트 전도' 프로그램을 보는 순간 어머니와 믿지 않는 여동생과 매제, 조카가 떠올랐다.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몇 주 동안 이어진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기도로 가족전도를 준비할 수 있었다. 특히 좋았던 것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윤현규 목사님이 처남을 전도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게 도움이 되었다. 처남에게 어떻게 거절당했었고, 어떻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는지를 매주 생생하게 들려주신 것이 나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나는 가족 전도 계획을 세우고 고향 대구로 내려갔다. 토요일 낮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여동생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방문이 잠겨 있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니



전수진 형제(J4U 청년부, 우가 바이블아카데미 '엔택트 전도'에서 윤현규 목사(좌)와 소모임을 하고 있다.

까 내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된다고 했다. '아, 이번 기회는 아닌가' 하며 실망하던 차에 옆에 있던 어머니가 대신 들겠다고 하셨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겠냐고 물었더니 자격이 없다고 하셨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모가 자식이 잘 나서 무엇인가를 주는 것

이 아니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수긍하고 결심하셨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되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다음날 공동체 온라인 그룹모임에서 멘토님이 가족들을 전도한 간증을 나눠주셨다. 그룹모임을 마치고 그 내용을 되새기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동생의 손을 붙잡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복음 메시지를 전했다. 동생이 어제와 다르게 끝까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물었더니 "천국에 꼭 가야 해?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것 아니야?"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예전에 전도 집회에서 이영표 선수가 한 간증이 기억났다. 그 이야기를 동생에게 들려줬더니 동생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다. 바이블 아카데미 엔택트 전도과정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고, 여동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군가가 되고 싶다. 8년 전 겨울 어느 날 J4U 청년부 전도집회에 초대해준 지인과 넘치는 사랑과 기도로 이번 과정을 지도해 주신 윤현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함께 동행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 전수진 형제(J4U 청년부)

“나도 그 누군가가 되고 싶다”



예배당 예배 19명까지 허용

홈페이지에서 예배당 예배 예약 필수

온누리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정 지침에 따라 일부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당 전체 수용인원 10%, 최대 19인 이하는 새벽기도회, 토요주일예배, 일요일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는 일요일예배 1부(정원 74명), 일요일예배 4부(정원 36명)를 제외한 각 주일에 배 2층과 부속실을 합하여

55명씩 참석할 수 있다. 양재온누리교회는 일요일예배 6부(정원 19명)를 제외한 각 주일에 배 2층과 부속실을 합하여 100명씩 예배드릴 수 있다. 부천 40명, 인천 45명, 수원 45명(토요일예배, 일요일예배 1부), 30명(일요일예배 2~4부), 대전(세종교육관) 48명, 평택 19명, 남양주 19명, 양지 19명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

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를 예약해야 한다.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한편 전국이 일괄적으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여름 아웃리치가 더욱 제한되고 있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 아웃리치를 잘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오كل랜드온누리교회 예배당 이전

오كل랜드온누리교회가 한인들이 모여 사는 노스쇼어 시티 글랜필드로 예배당을 이전했다. 오كل랜드 교민 약 70%가 노스쇼어 시티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조동남 장로(건축위원장)는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게 됐다”고 했고, 김대현 집사는 “예배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족하나마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간증했다.

박경훈 집사는 “새 예배당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현목 목사(오كل랜드온누리교회 담임)는 “새 예배당에서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글랜필드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일대일 양육자반 수강생 모집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8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열린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대면 강의로 전환되면 주일 오전 8시 선교관 401호에서 진행된다.

일대일양육자반은 양육자가 동반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양육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 ‘큐티의 이론과 실제’, ‘구원의 확신’, ‘양육 실습’,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8월 12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10-9265-1532

차세대 키즈벤처 14집 앨범 발매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역본부 키즈벤처 14집 앨범 ‘창조주 하나님’이 발매됐다. 차세대 유튜브 채널과 각 음원 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키즈벤처는 다음세대 예배를 위한 음반이다. 키즈벤처 14집 ‘창조주 하나님’ 앨범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담았다. ‘참 아름다워라’, ‘나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의 소원’, ‘오직 나의 하나님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영원한 주 하나님’ 등 찬양 14곡이 수록되어 있다.

CGNTV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

무목교회 선교지를 예배당으로!

교회와 목회자가 없는 선교지는 있어도 인터넷이 안 되는 선교지는 없다. CGNTV 인터넷 수신기 ‘드림 온플러스’를 설치하면 선교지 어디서나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다. 이번 여름 CGNTV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썸머 크리스마스 캠페인은 CGNTV 인터넷 수신기를 선교지에 후원하는 운동이다. 선교지에 CGNTV 인터넷 수신기 1대를 후원하는 데 드는 비용 15만 원(일본 제외 배송비 5만 원 추가)을 후원하면 된다. 문의: 02-796-2243



기독 OTT ‘풍당’ 추천 콘텐츠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

화합, 선의의 경쟁, 건강, 긍정 등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엄청나다. 스포츠 스타들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스타들의 영향력이 크다. 스포츠와 스포츠 스타들의 영향력을 선교에 접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CGNTV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에서 스포

츠 선교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음에 관심을 잃어가던 미국 청소년들이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 다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있다. 스포츠 선교를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자녀들과 함께 운동을 즐기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를 권한다.

시청안내: 풍당 애플리케이션, CGNTV 유튜브 채널

‘비긴 어게인’, ‘트루 챔피언’

국가대표 운동선수 전도영상 발표

전도사역본부 맞춤형선도팀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한 전도영상 ‘비긴 어게인(Begin Again)’과 ‘트루 챔피언(True Champion)’을 발표했다. ‘비긴 어게인’에는 끊임없이 경쟁을 펼쳐야 하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트루 챔피언’에는 힘든 훈련과 아픔, 상처를 이기고 빛나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겠다는 다짐이 담겨있다. ‘국가대표 기독 신우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는 “메달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좌절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다윗이 물뱀들을 가지고 골리앗을 마주했듯이 담대하게 경기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세대 SUMMER PASSION ‘창조_시작’

8월 8일까지 파워웨이브 주일예배 시간 온라인

파워웨이브 SUMMER PASSION 집회 ‘창조_시작(始作)’이 8월 8일까지 이어진다. 파워웨이브 주일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PASSION ‘창조_시작(始作)’에서는 ‘믿음의 시작’, ‘세상의 시작’, ‘생명의 시작’, ‘홍수의 시작’, ‘비전의 시작’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

간다. 4주차(8월 1일) ‘홍수의 시작’ 강의를 맡은 이경호 교수(인하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는 “홍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방주를 통한 적극적인 구원의 시작”이라면서 “홍수 속에 숨겨진 구속사적 의미와 과학적 의미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한국, ‘ON다 대회’

8월 2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

선교한국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선교대회 ‘ON다 대회’가 8월 2일(월) 오후 7시부터 8월 5일(목) 오후 9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선교한국 선교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 규모의 청년 학생 선교대회다. 청년들에게 타문화 선교를 도전하고 선교사역을 멘토링한다. 이번 ‘ON다 대회’는 8월 2일 ‘Gathering 연대’, 3일 ‘Global 세상’, 4일 ‘Church 사명’, 5일 ‘Missions 사역’을 주제로 진행된다. 선교한국 ‘ON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청년들은 선교한국 홈페이지(missionkorea.org)에서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4만3천 원(온누리교회로 등록하면 1만5천 원)이다. 문의: 02-563-2468

두란노아버지학교 훈련생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를 슬

로건으로 내걸고 이 시대 아버지들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수강신청은 8월 7일까지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fa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 생각해봅시다



/ 송인선 집사(부천온누리교회, 경기글로벌센터)

이주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2019년 이맘때 부천시 대산동에서 외국인에게 월세를 준 아주머니가 경기글로벌센터를 방문했다. 외국인이 혼자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저려다가 죽을 것 같으면서 주민센터와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한다. 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는 “안타깝지만 외국인이라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하다가 경기글로벌센터를 알려준 것이다. 그 아주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곧바로 뇌경색으로 다리가 불편한 중국 동포 윤박철(가명) 씨에게 생활 지원을 하고, 지역복지관과 시청 관계자들을 안내했다. 2020년 3월경 윤박철 씨가 내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기관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른 곳을 소개해 줬다.

지난 20일 부천역에서 중국 동포 노숙인 한 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좀처럼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 협조 해주지 않는 공공기관을 보면서 윤박철 씨가 생각났다. 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윤박철 씨가 지난해 6월에 죽었다고 했다. 큰 충격이었다.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았다. 지난해 3월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찾아가서 도왔더라면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지역복지관과 시청에서 음식을 몇 번 가져다 주고 더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인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이주민 여성들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주민 여성 김라헬(가명)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생계 활동이 어렵다. 간신히 일해서 월세와 공과금을 마련할 정도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귀화를 하든지 한국인과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자격이 된다. 김라헬 씨는 자포자기하고 있다. 김라헬 씨를 보면서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관악구 북한 이탈 주민 모자 아사 사건이 스쳐 지나가면서 매우 걱정됐다.

이주민 2백만 명 시대에 낮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을 돕는 일을 언제까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해야 할까?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을 돕는 일을 묵묵히 감당해 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가 그들을 돕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여러 방면으로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이주민들을 섬기는데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도움과 참여가 필요하다.

문의: 010-2756-3229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고바야시 메구 전도사(동경온누리교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와 사역이 중단되었다.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기도하며 잠자코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셨다.

지난해 10월,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동경온누리교회 담당)님이 나에게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한국어로 하라고 권하셨다. 나의 미숙한 한국어로도 일대일제자양육이 가능한지, 실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자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있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서승욱 권사님과 연결이 되었다. 내 한국어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렸다. 서승욱 권사님은 나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셨다. 사랑과 인내로 이끌어주셨다. 영적인 어머니처럼 나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셨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다.

서승욱 권사님과 나는 매주 SNS 통화 기능을 사용해서 만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는 온라인 도구를 사용해서 만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멀어졌다. 교회에 모이는 것도 제한되었고, 성도들은 물론이고 가족조차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다.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것도 여러 제한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도구를 사용해서 바다 건너 서승욱 권사님과 연결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온라인 도구를 사용해서 어디까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느냐 없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성령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임재하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다. 화면상의 만남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고, 기쁨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연결할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았다. 성령님의 역사에는 한계가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 유아세례 간증



/ 류시운 성도(성동광진공동체)

주님은 살아계셨다!

2017년 10월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귀한 생명이 찾아왔다. 계획이 있지는 않았지만, 아내와 나는 정말 기뻐했다. 아기가 태어날 날이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매일같이 설렘이 있었다. 아기의 예쁜 신발을 미리 사서 종일 들여다보면서 설레는 시간을 보냈다.

1월, 아내의 하혈이 발견됐다. 급하게 병원을 갔지만 뱃속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청진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슬픔을 느낄 틈도 없이 아내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극심한 슬픔과 우울감, 눈물로 매일 밤을 보내야 했다. 하루아침에 태아를 떠나보내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과 미움이 몰려오기도 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우리 부부에게 이와 같은 시련이 한 번 더 찾아왔다. 아내가 다시 임신한 했는데 자궁외임신으로 한쪽 나팔관을 절제해야 했다. 정말 절망적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태아를 보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같은 아픔을 겪어

야 했다. 게다가 앞으로 새 생명을 만나는 게 이전보다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에 또 한 번 절망했다. 주님을 원망했다.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에 대한 의심과 분노로 주님을 대했다.

그러나 나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신 주님이셨다. 나의 분노와 미운 마음,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리고 우리 곁으로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딸을 보내주셨다. 딸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러웠다. 주님을 부정하며 믿음을 의심했던 지난날을 회회했다. 하지만 회회만 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전보다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로 했다.

매일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위해 기도한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보호하심을 간구한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한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 순장학교 수료 간증



/ 김상모 성도(김포공동체)

그 이유가 분명 있으리라!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등록과 공동체에 소속하기까지 마음이 참 어려웠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지 예배마다 은혜가 있었다. 참 신기했다.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고 첫 순예배에서 남편이 순장 권유를 받았다. 매 학기 어른들의 수없는 권면과 권유를 정중히 거절하는 남편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다. 어른들이 계속 권하시면 마지못해서 할 법도 한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순에서 만난 순장님 부부의 섬김 덕분에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2년 뒤 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시던 순장님이 공동체 대표 장로님이 되셨다. 믿고 따르던 장로님 부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남편이 지난해부터 순장으로 섬기고 있다. 장로님 부부께서는 내게도 순장학교에 참가해 해보라고 권하셨다. 거부감없이 등록했다.

순조로울 것 같았던 순장학교 과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올해 2월 아버지를 갑작스레 천국으로 보내드렸다. 나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다. 목디스크와 어깨, 팔 등에 통증이 심해

졌다. 이런 상황에서 순장학교를 수강하는 게 부담이 되었다. 포기하고 싶은 갈등이 여러 번 있었다. 몸 상태가 나쁘니까 많은 것에 제약이 있고 괴로운 날이 많았다.

어느덧 10주가 지났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함께 한 남편도 내게 참 큰 도움이었다. 10주 동안 온누리교회에 대한 막연했던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또 한 요즘 생기 없던 나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매주 2회씩 나는 큐티 나눔 덕분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순장님들의 나눔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사랑으로 섬겨 주신 두 분의 테이블 리더님을 닮아가고 싶었다.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던 남편이 내가 순장학교를 함께 함으로 그 부담감을 조금 덜어내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순장학교에 참가하기를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장학교를 수료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 있으리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한다.

권사칼럼

선교지에서 온 편지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바로 세운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몇 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안타까움과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하는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 부부의 지난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여

자가 센스없이”라며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분노를 삭이고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해버리곤 했다. 그런 내가 정말 형편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질책했는지 모른다. 그후로도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남편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 사람 너무 까다로워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그러나 남편과 내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불평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남편을 위한 기도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내가 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소연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수준으로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는 아주 이기적인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토미 오마산은 책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에서 많은 아내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화가 났을 때나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분노와 비판의 마음을 담

아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하곤 했다. 오마산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한 심정으로 상한 마음을 고백하라고 권면한다. 그 책을 읽고 나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아파요. 남편에 대한 분노, 상심, 섭섭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직도 제게 남아있어요. 저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남편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기도는 내 능력으로 남편과 상황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부부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의 행복은 남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남편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

또한 남편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볼 수 있도록, 남편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남편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머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한다. 남편이 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자신과 회사, 나라와 민족,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보자.

“여보, 나는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해요.”

당신의 남편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될 것이다.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바로 세운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덕분에



그레이스 조 선교사
(탄자니아)

할렐루야!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시는 동역자님들께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무더운 날씨, 다시 확산세인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모든 동역자님들이 건강하시고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중보기도와 응원 덕분에 건강하게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연중 가장 온도가 낮을 때입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밤에는 조금은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5-6월 추수가 끝나고 긴 건기에 들어선 요즘은 물이 없어서 농사를 쉬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길이나 그늘,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지 교회가 건축이 완공되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보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 생긴 현지 교회에서는 세 명의 전도사들이 예배와 말씀 공부, 찬양 연습, 마을 전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건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바닷가 무슬림 마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파송하도록, 무슬림 마을에 교회가 개척되어서 마을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양육 받는 청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자라도록, 무슬림들을 전도할 귀한 제자들로 세우시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곳에 또 하나의 학교를 건축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희 사역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교실 두 칸과 교무실 한 칸의 작은 학교를 정부 땅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을의 숙원이었던 학교를 짓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최초로 우물도 뚫었습니다. 소금기가 없는 깨끗한 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건축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었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들 모두가 이 우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전기가 없는 지역이라 발전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술자팀 청년 7명은 모두 믿는 자들이고, 전도사들과 지체들이 건축현장에 자주 가서 주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건기라서 더욱 물이 갈급합니다. 소금기 없는 생수가 계속 솟아 나와서 주민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파는 우물 물을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물사역을 통해서 무슬림 마을들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덕분에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미약하지만 기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늘 힘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해의 하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아도 주님이 주시는 살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내내 평안하십시오.

신앙에세이



권오향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현대인들이 겪는 심리적인 장애 중에 ‘건강염려증’이라는 질병이 있다. 건강염려증은 실제 자신의 몸 상태보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함으로써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일종의 강박 장애이다.

건강염려증의 특징은 유명한 병원은 다 찾아다니고, 검사란 검사는 다 받아보는데 정작 의사의 진단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심각한 질병이라고 진단을 내리면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직장생활에도 지장을 줘서 가까운 인간관계가 깨지는 아픔까지 초래한다는 점이다.

한 심리학자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표현했고,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웬은 “염려는 아직 내 안에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을 ‘혹시’로 채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 인생에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찾아오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은 염려로 가득한 인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알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마 6:26~27).

예수님은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염려에서 벗어나기

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인간과 새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는 먹을 것을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저장할 수도 없다. 그러한 새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심을 수도, 거둘 수도, 모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무 능력이 없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심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노래하며 사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어느 부모가 자신의 소중한 자식을 내버려 두겠느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내 몸과 생명이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염려하는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자연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잠잠히

바라보자. 틀림없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오묘한 자연의 신비를 경험하고, 피조세계를 신실하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염려라는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수 있을 것이다. 문득 재미난 동시 한 편이 떠오른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네. ‘난 정말 알고 싶어. 인간들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왜 그렇게 서둘러 염려하는 건지.’”

“참새가 울새에게 말했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 몰라서인 거 같아. 너와 나를 돌보아주시는 그 아버지 말이야.’”

자연은 우리 인생의 배경이 아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길을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선물이다. 자연으로 들어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들꽃을 바라보라. 그 속에서 새 한 마리, 꽃 한 송이의 신뢰를 가지고 돌아 오기를 바란다.



주일강단

<5면에 이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갈망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갈망은 첫째, ‘의미’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람들은 의미 없는 일을 싫어합니다. 의미를 발견하면 어떤 위험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원’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영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갈증은 영원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갈망들은 실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의미를 갈망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갈망하는 것은 영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갈망하는 모든 것은 그 대상이 존재합니다. 인간에게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의존할 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영광을 발견하고, 영원한 실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는 갈망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듭니다. 의미에 대한 갈망을 재미로 바뀌어버리고 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재미는 위험합니다.

또한 영광에 대한 갈망을 ‘성취욕’ 혹은 ‘우월의식’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 의식을 깨닫습니다. 영광에 대한 갈망을 해결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면 그 영광에 도취합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월의식은 언

제든지 무너지고, 그런 성취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광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이론 업적을 이루지 못했음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성취를 맛보지 못했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으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람은 이생에 대한 집착으로 그 갈망을 대체하려 합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는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무덤입니다.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썩지 않도록 오랫동안 보관한다고 영원이 오지 않습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을 이생에 대한 집착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 유교에서도 오랫동안 제사를 지냅니다. 가문의 전통이 깊을수록 오랫동안 제사를 지냅니다. 저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입는 옷을 입어야 하고, 이 땅에서 먹는 음식을 계속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이생에 대한 집착입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을 이생에 대한 집착으로 바꾸면서 스스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미에 휩쓸리고, 성취욕과 우월의식에 휩쓸리고, 이생에 대한 집착에 휩쓸리는 모습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인생의 갈망을 여러 남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여전히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갈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에는 또 다른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사 12:2-3, 개역개정).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갈망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의 우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요 4: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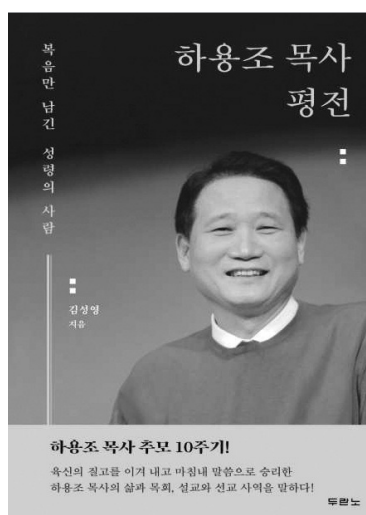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는 샘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나올 때 구원의 우물 되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우리의 옛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새 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영원에 이를 수 있는 새 마음,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에 이르는 길을 깨닫게 하였고, 의미를 깨닫는 진리를 허락 하였고, 영광을 누리는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위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인생으로 변해가는 재난의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 기념 출간

복음만 남긴 성령의 사람



《하용조 목사 평전》
김성영 저 | 두란노 | 35,000원

‘복음만 남긴 성령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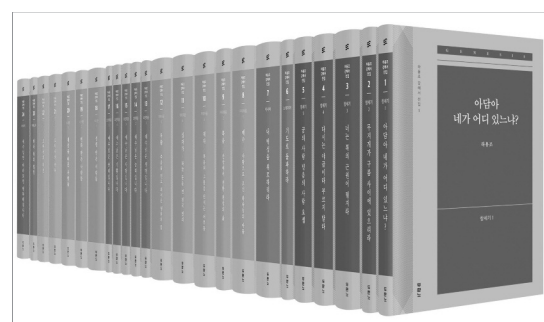
민음의 후배들이 기억하는 하용조 목사의 모습이 다. 《하용조 목사 평전》의 부제이기도 하다.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를 추모하며 두란노서원에서 《하용조 목사 평전》을 출간했다. 하용조 목사가 성령님과 동행한 복음의 길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

하용조 목사 평전에서는 그를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육신의 질병을 안고 씨름했던 목회자요, 성령으로 불꽃처럼 타올랐던 선교사’라고 평가한다. 참된 목회자이자 열정적이었던 선교사 하용조 목사의 생애를 만나볼 수 있다. 하용조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다하고자 몸부림쳤던 흔적이 책 곳곳에 녹아있다. 하용조 목사의 삶을 ‘복음’, ‘성령’, ‘교회’, ‘목회’, ‘예배’, ‘설교’, ‘전도와 선교’, ‘교육’, ‘금슬 사역’, ‘문화’, ‘고난’, ‘생애와 사상’ 등 12가지 주제로 깊이 있게 다뤘다. 하용조 목사의 생애를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복음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른다.

《하용조 목사 평전》은 전 성결대학교 총장이자 문학가인 김성영 교수가 집필했다. 김성영 교수의 저서는 《백의중군》, 《아바바트 아도나이》, 《기독교문화론》, 《찬양의 성서》, 《우산의 명상》, 《완벽한 성경성구대전》, 《조직신학 성구사전》, 이종표 목사 평전 《죽어서도 행복한 사람》 등이 있다.

“나는 살기 위해 설교한다”



《하용조 강해서 전집》
하용조 저 | 두란노 | 480,000원

달음을 줬다. 성경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이했다.

《하용조 강해서 전집》은 창세기 5권, 느헤미야 1권, 이사야 1권, 마태복음 5권, 요한복음 5권, 사도행전 3권, 로마서 2권, 에베소서 1권, 히브리서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예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 산상에서 전한 천상의 삶’, ‘제자,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 ‘성령 받은 사람들’, ‘변화 받은 사람들’, ‘세상을 바꾼 사람들’, ‘로마서의 축복’, ‘로마서의 비전’, ‘하나 됨의 열망’,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등의 설교가 담겨있다. 《하용조 목사 평전》과 《하용조 강해서 전집》은 두란노문고와 두란노물 홈페이지(mall.duranno.com)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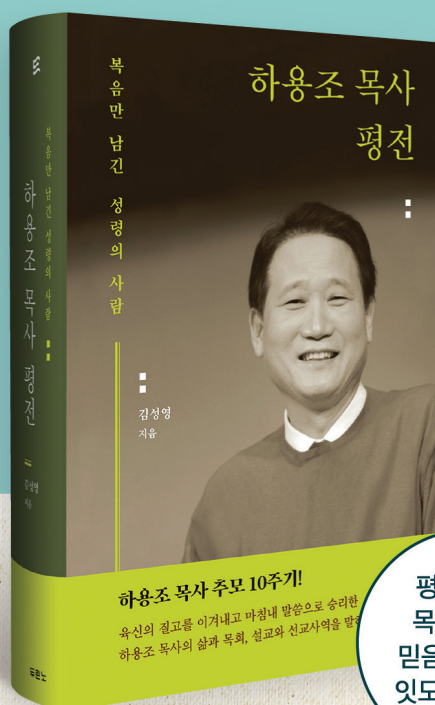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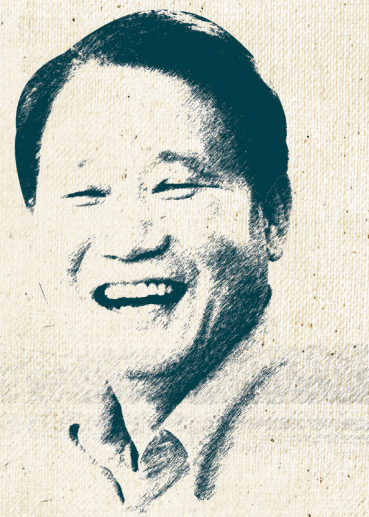
“나는 살기 위해 설교한다.”

故 하용조 목사의 목숨과 같았던 설교를 《하용조 강해서 전집》(전 24권)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목숨보다 중요했던 하용조 목사의 설교는 늘 한국 교회 강단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중에서도 강해 설교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제자로서 전도와 설교를 왜 해야 하는지 등 큰 깨

하용조 목사 추모 10주기

순전한 복음 전도자
비전과 성령의 설교자!

우리는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합니다!



복음만 남긴 성령의 사람

하용조 목사 평전

김성영 지음

육신의 절고를 이겨 내고
마침내 말씀으로 승리한
하용조 목사의 삶과 목회,
설교와 선교사역을 말하다!

하용조 목사 추모 10주기!
육신의 절고를 이겨내고 마침내 말씀으로 승리한
하용조 목사의 삶과 목회, 설교와 선교사역을 말하다!

평신도부터
목회자까지
믿음의 계보를
잇도록 돕는 책

하용조 강해서 전집 (전24권)

초판 한정
양장 세트



불꽃 같은 설교로 한국 교회를 달군
하용조 목사의 강해서 전집

1~5권 창세기 · 6권 느헤미야 · 7권 이사야
8~12권 마태복음 · 13~17권 요한복음 · 18~20권 사도행전
21~22권 로마서 · 23권 에베소서 · 24권 히브리서

두란노